



새 옷 입는 성읍민속마을 초가 26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에서 주민들이 새해를 맞아 제주 전통 초가 지붕을 잇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3년 이내 건설자재 대란 우려”

한국암반공학회, ‘제주 토석 채취·활용’ 연구 영역
“도내 9개 채석장 토석 조만간 바닥… 악화 심화될 것”
채석장 공영개발·채취 깊이 40m→60~70m 검토 주문

제주지역에서 앞으로 3년 이내에 건설 자재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연구 영역 결과가 나왔다. 도내 채석장들이 채취하고 있는 흙과 암반이 조만간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의뢰로 사단법인 한국암반공학회가 수행한 ‘제주 실정에 맞는 토석 채취 및 복구·활용 방안 연구영역’에 따르면 도내 9개 채석장이 허가 받은 토석(골재) 채취 물량은 1167만 7000㎥로 이중 82%인 963만 7000㎥에 대한 채취가 끝나 현재 남아 있

는 토석은 204만㎥(지난해 5월 기준)다. 이는 정부가 올 한 해 제주 지역에 공급하기로 계획한 1년 치 물량보다도 적은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12월 수립한 ‘골재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는 204만 8000㎥를 비롯해 2027년 206만 2000㎥, 2028년 207만 6000㎥에 이르는 골재를 각각 공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골재는 각 지역에서 자체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족하면 해당 지역 주택 공급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국가는 각 지역 간

골재 반·출입 물량을 조정하기 위해 이런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단 정부 수급 계획은 순환골재(건축폐기물을 재활용 한 골재)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수요보다 적게 산정되는 특징을 보인다.

정부가 올해 전망한 도내 골재 수요도 공급 계획량보다 약 40% 많은 342만 7000㎥다. 실제로 제주지역 골재 자체 생산량은 해마다 수요에 못 미쳐 건설 경기가 나뉘었던 지난 2024년에도 180만㎥를 다른 지역에서 들여왔다. 이는 건설 자재값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 공급까지 동반 상승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역진은 도내 9개 채석장 내 남은 토석량을 고려해 2028년까지 자

재 조달할 수 있는 골재량을 한해 평균 40만㎥로 추정했다. 이는 공급 계획량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영역진은 “가채량(앞으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소진되고 9개 채석장 중 2028년 사이 6곳의(채취) 인허가 기간이 만료돼 추가 채석 관련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골재 대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부족한 골재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석장 추가 개발이 있지만 환경 훼손 논란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도내에서 민간이 채석장 신규 개발에 나서거나 연장 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2면으로 계속

올해 첫 시행 ‘손주돌봄수당’ 본격

도, 신청자 419명 등 조부모 대상 필수 교육
월 최대 60만원… 매월 1~15일 읍면동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에 400여 명이 신청했다. 제주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필수 이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손주돌봄수당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에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다. 신청은 매월 1~15일 읍면동에서 이뤄진다. 1회 신청 시 1년간 유효하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 받는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간 또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달에는 지원이 안 된다.

제주도가 지난 1~15일 손주돌봄

수당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19명이 신청했다. 올해 500명 참여를 예상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사업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교육 대상은 손주돌보미로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조부모들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영유아기 발달 이해와 놀이 방법 ▷아동 학대 예방 ▷아동 발달 단계별 돌봄과 지도 등으로 짜였다. 1차 교육은 오는 29일 제주시 농어업회관 대강당, 2차 교육은 2월 5일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각각 진행된다. 손주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는 반드시 4시간 과정의 이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이해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교육을 통해 모든 참여 조부모가 아이에게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70만원 사용하면 14만원 환급”

도, 2월 한달 ‘탐나는전’ 포인트 20% 적립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이 2월 한 달간 현행 10%에서 20%로 대폭 확대되며 월 최대 14만원까지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적립 한도는 70만원으로 유지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적립률 상향은 탐나는전 운영 이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 명절을 맞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 첫 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 2조 3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에는

7300억원의 탐나는전이 발행됐다.

지난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립률을 10%에서 15%로, 적립 한도를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을 때 월평균 사용액이 117% 급증했다. 소비자 혜택은 3배, 가맹점별 매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이번 20% 적립률 상향이 지역 소비를 한층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탐나는전 적립률 상향은 도민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역경제에 온기가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전국 첫 ‘RE100 제주감귤’ 출시… 3면 / 제주경찰, 필로폰 밀반입 조직원 12명 검거… 4면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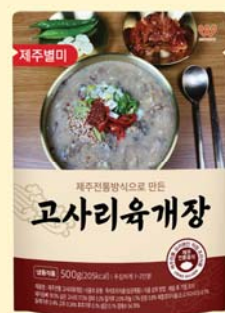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북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